얼굴마비(중추성 마비)

개요

· 등록일자 : 2020-04-29 · 업데이트 : 2023-10-13 · 조회 : 8395 · 정보신청 : 93

개요

얼굴마비는 중추성 얼굴마비와 말초성 얼굴마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이 뇌 속을 지나가는 경로에 이상이 발생해 얼굴마비가 오는 것을 중추성 얼굴마비라고 합니다.

건강당기 수정 문의 📢 🔒

개요-원인

중추성 얼굴마비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 뇌졸중(뇌경색, 뇌졸혈 등)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뇌졸중 외에도 뇌종양, 다밤성경화증 등 다양한 뇌질환에서도 중추성 얼굴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개요-경과 및 예후

중추성 얼굴마비의 경과 및 예후는 원인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증상

중추성 얼굴마비에서는 입이 한 쪽으로 돌아가고 입 주변 근육이 막해집니다. 입 주변의 마비가 생기면 물을 마실 태 물이 새거나 식사를 한 때 음식을 즐리게 됩니다. 또한 불에 바람을 넣으려고 하면 마비가 생긴 얼굴 쪽으로 바람이 샙니다. 입 주변의 마비가 심해도 눈 주변의 마비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입이 돌아가더라도 눈을 꼭 감거나 이마에 주름을 잡는 것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반면 팔초성 얼굴마비에서는 눈감기나 이마에 주름잡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뇌졸중으로 인한 얼굴마비는 대부분 증상이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갑자기 생기며, 발병 당일에 마비가 가장 심한 경향을 보입니다. 또한 뇌졸중은 얼굴마비 외에 아래 증상을 돕반할 수 있습니다.

- 한쪽 팔다리 마비
- 한쪽 팔다리 감각저하
- 언어장매 (말을 못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)
- 발음장애 (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)
- 이상행동
- 시야장에 (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증상)
- 운동살조 (탈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)
- 복시 (울체가 돌로 보이는 증상)
- + 삼킴장애

진단 및 검사

우선 진찰을 통해 얼굴마비가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구분합니다. '이마에 주름을 잡아보세요', '눈을 꼭 감아보세요', '눈을 깜박여보세요', '치아를 보여주세요' 등 간단한 요청으로 중추성과 말초성 얼굴마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팔다리 마비, 언어장에, 발음장에, 복시 등 다른 중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진찰을 통해 중추성 얼굴마비가 의심되면 뇌 자기공명영상(Megnetic resonance imaging, MRI), 뇌 컴퓨터단층촬영(Computed Tomography, CT) 등의 영상검사가 필요합니다. 뇌 영상검사 결과에 따라 뇌 혈관검사, 뇌척수액검사 등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

ः 목록

습니다.

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이용안내 저작권정책 및 웹접근성

[28159]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문의사항: 02-2030-6602 (평일 9:00-17:00, 12:00-13:00 제외) / 관리자 이메일 : nhis@korea.kr COPYRIGHT @ 2024 질병관리청. ALL RIGHT RESERVED

해외기관 ^ 유관기관 ^ 정부기관 ^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**"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"**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



※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